

전남도립미술관으로 떠나는 문화 바캉스

전남도립미술관
그리니

무더운 여름엔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열리는 전시회를 관람하는 '문화피서'에 나서도 좋을 듯하다. 지금 광양 전남도립미술관(관장 이지호)에서는 다양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기획전 '애도:상실의 끝에서', 윤재우 특별기획전, 박치호 개인전 등 차분히 둘러보면 좋을 전시들이다.



'애도:상실의 끝에서'전에서 만나는 잉카 소니바레의 '케이크 카드'.

애도:상실의 끝에서
구부린 어깨 위에 십여개의 알록달록한 케이크 조각을 얹고 있는 작품 속 그는 원색의 아프리카 의상을 입고 있다. 나이저리아계 영국인인 작가 잉카 소니바레는 전통의상으로 알았던 '디치 왁스'가 사실은 서구 열강에 의해 인도네시아에서 이식된 것임을 뒤늦게 알고 혼란에 빠진다. '승자의 역사'가 쓰여질 때는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작품 '케이크 카드'다.

바로 옆에서 상영중인 그의 영상 작품 '오딜과 오데트'는 '백조의 호수'에 등장하는 오딜과 오데트가 거울을 바라보며 서로 같은 동작으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오는 9월12일까지 열리는 '애도:상실의 끝에서'전은 생태계 재앙, 무기 개발과 전쟁, 글로벌 전염병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매일의 '상실'에 무릎 꿇지 않고, 애도하며 서로를 다독이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기획전이다. 상실에 매몰되기 보다는, 그 상실의 자리를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앞으로 작은 한발씩을 내딛기 위해 우리는 어떤 마음이어야 하는지 한번쯤 돌아보게 만든다.

13명의 참여 작가들은 자신이 겪은 상실의 이미지를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했다.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작품은 유명한 전설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모티브를 따온 빌 비올라의 영상 '트리스탄의 승천'과 '불의 여인'으로 꼭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관람하기를 권한다. 수직으로 설치된 대형 영상 속에서 펼쳐지는 생과 사, 상실과 부활을 물과 불로 풀어진 작품은 한편의 단편 영화를 보듯, 몰입감을 준다. '트리스탄의 승천'은 죽음 이후에 영혼이 깨어나 우주공간에서 승천하는 모습을 역류하는 폭포와 함께 환상적으로 묘사했다. '불의 여인'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빠져들어가는 한 여인의 모습을 포착했다.

'보파리 오브제'로 유명한 김수자 작가의 영상 작품 '바늘 여인 1999-2001'은 긴 머리를 한가닥으로 묶은 채 뒷모습으로 서 있는 작가의 모습을 도쿄, 상하이, 뉴욕, 텔리 등 8개 도시를 배경으로 촬영한 작품이다. 작가는 바느질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작가 본인이 직접 세상 속의 다양한 타인을 연결하는 '바늘'이 되기를 원한다. 작품 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사방의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각 도시의 모습을 바라보며 동류애를 느낀다.

기획전 '애도:상실의 끝에서'

상실 속 애도...9월 12일까지
김수자·리히터 등 13명 참여

윤재우 특별기획전

한국1세대 서양화가

화려한 색채...9월 12일까지

박치호 개인전

공립미술관 추천작가 매칭 전시

그래피티로 유명한 닉 워커의 '미키 피스톨'은 미키마우스의 머리 대신 회전식 탄창 권총 리볼버를 한 화면에 담은 작품으로 미국의 총기사고를 풍자했고, 게르하르트 리히터의 작품 '루디 삼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삼촌'의 모습을 통해 전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엉킨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박정선 작가는 '얼음 속의 기억-무덤뿔' 등의 작품을 통해 직접 제작한 유리로 싸인 냉동고 속에 아버지의 산소에 놓였던 조화, 자신의 신발, 자개 등 사물들을 배치, 잃어버린 것들과 상실의 기억을 되새긴다. 또 1세대 페미니즘 사진작가 박영숙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을 요리하다 칼을 들고 망하니 서 있는 모습으로 담아낸 작품은 일상의 감정과 어우러져 더욱 더 아련하다.



윤재우 작 '테라스'

그밖에 이재각 작가는 밀양 송전탑 사건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등 국내에서 일어난 다양한 사회적 사건이 개인에게 남긴 상흔을 들여다 보고, 유백 작가는 벨레로 소재로 한 사진 작품을 선보인다.

윤재우 전

전시장에 들어서면 화려한 색채가 압도한다. 정물화, 풍경화, 인물화 등의 작품에서 만나는 강렬한 색감은 그의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요소다.

특별기획전 '윤재우:색채의미' (9월12일까지)는 강진 출신의 윤재우(1917-2005) 작가의 작품 세계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로 전남도립미술관이 '발굴'의 의미로 기획했다.

한국 1세대 서양화가로 교육자이기도 했던 그

는 1944년 오사카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해방 이후 광주사범학교와 조선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다. 이후 1982년 봉천중학교 교장으로 퇴직할 때까지 평생을 교육자이자 예술가로 활동했으며 국전에서 4차례 특선을 수상했다.

첫 번째 색선은 한국적 색채의 표현이 돋보이는 한국적 인상주의 화풍의 작품을 선보인다. 두 번째 색선 '어둠 속에서 찾은 색채'에서는 '밤의 화가'로 불린 그가 어둠 속에서 작업을 진행한 작품들을 선보이며 세 번째 색선은 현장의 생동감을 담은 풍경화를 집중적으로 전시하고 있다.

마지막 색선 '해방된 색채'에서 만나는 작품은 굵은 윤곽선에 의한 색면 분할 등이 돋보이는 말년의 그림들이다.

박치호 전

박치호 개인전(8월 21일까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주최한 '2021년 공립미술관 추천 작가·전문가매칭 사업' 일환으로 기획된 전시다.

여수 경도 출신으로 추계예술대를 졸업한 그는 개인의 상처와 사회 현실과의 관계를 어둡하고 거대한 몸으로 표현해왔다.

'Big-Man:다시 일어서는 몸'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는 신작 20여점을 포함해 회화, 조각, 드로잉 등 70여점이 나왔다. 작가는 불안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착되지 않고 표류하며 떠다니는 것, 혹은 잊혀진 것들, 바다에 무심히 버려진 잔해들에 눈길을 준다.

대표작 '다시 일어서는 몸'은 화면안에 가시적 윤곽이나 뚜렷한 색 대비 없이 불분명한 자제로 상실과 사색, 망각의 모습을 보여준다. 신작 '드로잉'과 '두상' 시리즈 등 입체 작품들도 눈길을 끈다.

/광양·글·사진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박치호 작가의 개인전 'Big-Man:다시 일어서는 몸' 전경.

문화장터 '누리랑게'

내일 월산5동 행정복지센터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장터 '누리랑게'를 오는 27일(오후 2시~5시) 남구 월산5동 행정복지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누리랑게'는 문화누리카드 이용이 어려운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지난 6월 용봉동·동명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진행되는 문화장터는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10여 곳이 참여해 다양한 문화상품을 판매하는 자리다. 또한 판매 당일 문화누리카드 결제자에게 선착순으로 소정의 사은품도 증정한다.

아울러 문화누리카드 결제 이벤트 '행운의 7월, 쿨하게 쏘다!' 접수도 현장에서 진행해,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누리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62-670-7444/744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토끼·자라와 '신나는 국악여행'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28~30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고전 동화와 함께 떠나는 국악여행'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하 국악관현악단) 제 130회 정기연주회 '신나는 국악여행'이 오는 28일부터 30일(목·금·토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5시)까지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신나는 국악여행'은 국악관현악단이 지난해 첫 선을 보여, 매 회차 매진이 되는 등 큰 호응을 받은 공연으로 올해 한층 더 탄탄한 스토리로 돌아왔다.

이번 공연은 1장 토끼와 자라, 2장 흥부와 놀부, 3장 효녀 심청 등 총 3장으로 구성됐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동화를 소재로 아름다운 국악기 연주와 체험, 여기에 노래와 춤을 곁들여 신나고

유쾌한 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번 무대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한상일 상임지휘자가 예술감독을, 최원복 부지휘자가 지휘를 맡는다.

연출은 김하정 유평씨에 예술감독이 맡았으며 광주시립창극단 한명선 수석단원이 안무, 어쿠스틱양상블 재비 대표를 역임한 장태평이 작곡에 참여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온 가족이 신나고 재밌게 감상할 수 있는 '신나는 국악여행'은 기존 관현악 공연에서 벗어나 다채로운 국악관현악 공연을 입체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무대이다.

악사들과 함께 모든 배우가 등장, '동화의 나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신나는 국악여행 중 토끼와 자라 공연 모습.

라'를 부른다. 노래를 부르는 동안 자라의 이상을 입은 민서는 순간 자라가 되고 만다. 엄마도 보고 싶고 자라로 살고 싶지 않은 민서는 울기 시작하고, 처음 본 자라를 신기해하던 토끼는 흑시 별주부전의 자라인지 의심을 하게 된다. 자라가 된 민서는

자신의 등에서 발견한 소금을 불며 동화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전석 1만원.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와 티켓링크에서 예매 가능. 문의 062-415-5403.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비트 시스템'

대중매체에 길들여진 현대사회 'Frame'

선영현 개인전, 27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서양화가 선영현 작가 개인전이 오는 27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1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금호갤러리 유·스퀘어 청년작가 전시공모에 당선돼 마련된 이번 전시에서 선 작가는 대중매체의 상징 중 하나인 필름을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다.

'Frame'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

는 오늘날 대중매체가 현대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을 다양한 컬러의 필름이미지로 만들어 전시한다.

작가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려운 대중매체의 이미지를 반복된 패턴 필름 이미지 패턴으로 표현한다.

필름의 발명으로 인해 기록된 이미지의 편집 및

조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가설에서 출발한 작업이다. 각기 다른 형태의 사각형 속에 들어있는 다채로운 색깔의 필름 이미지는 대중매체에 길들여진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작가의 눈으로 이미 지화한 것이다.

작가는 세밀한 붓 터치와 리얼하게 표현된 화려한 필름들은 대중매체의 어두운 내면을 표출하고 있다고 말한다.

선 작가는 흥익대 미술대학원 회화과 석사 졸업, 전남대 일반대학원 미술학 박사 수료를 거쳐 있으며 제22회 대한민국 회화대전 특선 외 10여 회의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